

# 최근년간 로어어회에서 일어난 문체론적변화

리 원 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의 산물이며 사회생활의 반영인 언어는 시대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변화되고 풍부화된다.》(《김정일선집》제5권 중보판 119페이지)

최근년간 로어어회에서 문체론적중성화와 문체론적재평가를 비롯한 일련의 문체론적변화현상들이 일어났다.

최근년간 로어어회에서 일어난 문체론적변화현상은 무엇보다먼저 로어어회의 문체론적중성화를 들수 있다.

문체론적중성화는 일정한 문체에 고착되어 쓰이던 어휘가 문체론적빛깔을 잃고 여러 문체구별이 없이 다문체적으로 쓰이게 되는 현상이다. 다시말하여 문체론적빛깔을 가지고 쓰이던 어휘가 중성체어휘로 넘어가는 현상이다.

로어의 문체론적중성화는 높임체의 어휘나 낮춤체의 어휘에서 다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것은 로어표준어의 규범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어 《자유로운 규범》들이 형성된것이다. 어휘의 다문체적사용과 관련하여 일련의 금지조치들도 취하였으나 실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있다. 결과 협소한 전문분야에서 쓰이던 서적체어휘 특히 이전에 회화체나 속어에 속하던 단어들과 사회적리용분야가 제한되어있던 통용어와 같은 낮춤체의 많은 단어들에 의하여 로어중성체어휘의 구성이 현저히 보충되였다.

실례로 **предпосылки**(전제, 전제조건), **вкупе**(함께, 같이), **доколе**(언제까지, 얼마나 오래, 어디까지, 어느 곳, 제선까지, ...할 때까지, ...하는 한, ...하는동안), **воздать**(주다, 표시하다; 갚다, 갚음하다, 보답하다), **всуче**(구태여, 공연히), **узреть**(보

다, 알아채다, 리해하다), **стеся**(길, 인생행로), **баталия**(전투, 격전), **уготовить**(마련하다,준비하다), **радеть**(배려하다, 협력하다, 열성을 다하다), **нежели**(...보다), **прах**(시체, 유골, 유해), **останки**(시체, 유골, 유해) 등과 같은 단어들에서는 서적체적빛깔이 심히 약화되였다. 그리하여 이 단어들은 중성체의 문맥에서 쓰이는 일반어휘로 되고있다.

그리고 이전에는 서적체로 규정되어있던 **перспектива**(전망), **принцип**(원칙), **проблема**(문제), **престиж**(위신, 영향력), **тенденция**(경향)와 같은 단어들도 오늘날에는 서적체적빛깔을 상실하고 일상회화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문맥에서 자유롭게 쓰이고있다.

또한 **импонировать**(감명을 주다), **импровизировать**(즉흥적으로 하다), **ординарный**(평범한), **инертный**(타성적인, 무기력한)와 같은 단어들도 서적체적빛깔이 없이 쓰이고있다.

이전에 서적체에 속하던 로어어휘가 더욱더 자주 일상생활이나 공식적인 국가활동분야에서 리용되고있다.

예: **блюсти интересы государства**

(국가의 리익을 보호하다)

**трудовая лепта**(로력적성과)

**свершения**(성과)

**деяние**(사업)

**поприще**(인생행로, 생활)

**достояние**(재산)

**пойти по пути сокрытия**

**недо-статков**(결함을 감추는 길로 나간다)

최근까지만 하여도 우의 단어들은 낡은 어휘로 인정되어왔다. 낡은 서적체어휘가 중성체문맥이나 속어적문맥에서 리용되면

서 중성화되면 새로운 문맥속에서 이 단어들의 의미와 문법적연계가 망각되는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 동사 **ратовать**(싸우다, 투쟁하다)와 **радеть**(노력하다, 열성을 다하다)만 놓고보아도 너무나 망각되어 출판물들에서는 자주 이 동사들의 격지배를 혼동하여 쓰고있는것을 볼수 있다.

례: **Радели за правовое государство.**

(법치국가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의 실례에서 동사 **радеть**는 격지배가 **кому-чему** 또는 **о чем**이지만 **ратовать**처럼 **за что**라고 틀리게 썼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음의 실례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례: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й актерский фонд, об учреждении которого я больше года ратую...**

(내가 1년나마 내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배우자선기금...)

...людей, радеющих за свою профессию(자기의 직업에 열성을 내는 사람들...)

현대로어정론문체에서는 종교적단어를 비롯하여 이전에는 타부에 속하던 단어들이 자주 쓰이는 현상도 나타나고있다.

례: **иконостас орденов**

(훈장을 가득 단 가슴)

**политическое евангелие**(정치복음서)

**храм науки**(과학의 전당)

높임체의 로어어휘도 자주 낮춤체의 문맥에서 리용되고있다.

례: **слаборазвитая сверхдержава**

(후진초대국)

**хилая держава**(허약한 강국)

높임체의 어휘가 중성화되는 현상과 함께 속어와 통용어, 협소한 직업어들이 중성체의 일반어휘에 넘어가는 현상도 나타나고있다. 이 경우에 속어적단어들은 낮춤체의 빛깔을 잃고 문체적으로 중성화되지만 통용어와 직업어들은 문체적변화만이 아니라 의미적변화도 일으키면서 의미폭을

넓혀 새로운 문맥들에서 리용되게 되는것을 볼수 있다.

실례로 **ребята**(아이들), **парень**(젊은이), **учеба**(학습), **лодырничать**(건달부리다), **нехватка**(부족), **разбазаривать**(탕진하다)와 같은 속어적단어들은 이미 20세기초에 중성화되었다. 20세기말에 와서는 사용분야가 제한되어있던 단어들이 일반표준어휘로 넘어가는 현상이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신문언어에서는 **лагерник**(수용소감금자), **невозвращенец**(외국에서 귀국하지 않은자), **тусовка**(비합법적인 회합), **перекур**(짧은 휴식), **халява**(공짜, 무료), **беспре-дел**(극단한 무질서), **отказник**(군대복무를 거절하는자), **хрущоба**(구조가 나쁜拉克후한 주택), **летучка**(긴급회의), **кайф**(마약, 마약에 취한 상태)와 같은 류형의 단어들이 널리 리용되고있다.

로어통용어나 속어에 속하던 화폐이름이 널리 쓰이는것만 보아도 표준어에서 회화적성격이 강화되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례: **бабки**(돈), **лимон**(100만Rbl), **чирик**(10Rbl), **пятихатка**(500Rbl), **зеленые**(미팔라), **баксы**(미팔라)

로어의 비표준어휘는 단순하고 생동하며 일정하게 과격적이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하여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있다. 이러한 어휘는 출판물들에서 리용되면서 다양한 표현적빛깔을 나타낸다. 항시적으로 오랜 기간 리용되는 과정에 이러한 단어들은 출판물들에 고착되고 자기의 문맥을 확대하며 나아가서 표준어를 풍부하게 해준다.

비표준어휘쓰임의 일반적인 방향은 이러하지만 이것은 이와 같은 단어들이 모두 표준어에 들어간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세월의 흐름속에서 이 단어들은 검토과정을 거치게 되며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절실히 필요한것들만이 공고한것으로 남게 된다.

로씨야표준어에는 회화어어휘와 속어, 통용어와 함께 накладка(덧판), спайка(납땜), смычка(접합점), прослойка(간층)와 같은 직업어들도 적지 않게 들어왔다. 이 부류의 단어들이 문체론적으로 중성화될 때에는 의미가 확대되고 전문직업적인 의미가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년간 로어어휘에서 일어난 문체론적변화현상은 다음으로 로어어휘의 문체론적재평가를 들 수 있다.

로어어휘의 문체론적재평가는 일정한 문체에 고착되어 쓰이던 단어가 다른 문체에서 쓰이면서 문체적평가가 달라지는 현상이다.

실례로 일부단어들은 중성체로부터 회화체(давеча - 얼마전에)로 넘어가기도 하고 속어(взаправду - 정말로, загодя - 미리, кабы - 만일)나 서적체(огласить - 공개하다, овеять - 영광스럽게 하다)로 넘어가기도 한다. 이전에는 중성체에 속하던 단어들(сговор - 공모, 결탁, писание - 글, 작문, сборище - 무리)이 부정적평가의 의미를 가지는 회화체어휘부류로 넘어갔다. 《로어사전》(《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С. И. Ожегов, 2007)에는 단어 сборище가 부정적뜻빛깔을 가진 회화체적단어로 규정되었으며 писание는 야유의 뜻빛깔을 가진 단어로, сговор는 불찬성의 뜻빛깔을 가진 단어로 규정되어있다. 이 단어들에 대한 이러한 문체론적재평가는 이미 1998년에 편찬된 《로어사전》(《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С. И. Ожегов, Н. Ю. Шведова)에서부터 제기되었다.

로어어휘에서는 에두름법으로 단어의 불쾌한 의미를 은폐시키는 현상도 나타나고있다. 그리하여 중성적인 단어나 단어결합에 의하여 정치적, 정신도덕적 및 미적 견지에서 로출시키지 말아야 할 직접적의미가 은폐되게 된다.

예: компетентные органы 권위있는 기관(국가안전위원회, 련방안전국 등)  
учреждение 기관(수용소, 감옥)  
пойти на крайние меры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길로 나가다  
(군대를 들이밀다)

бесперспективная квартира  
전망이 없는 집(주인이 나이가 많은 집)  
бесперспективная семья 전망이 없는 가정(아이를 낳을 가망이 없는 가정), лица без определенного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사람(방랑자)

이러한 에두름법은 직접적인 명명의 본 뜻을 중성화시키며 애매한 단어형태를 리용하여 그 뜻을 약화시킨다. 이와 같은 위장수법도 물론 본뜻을 완전히 가리워주지 못하지만 새로운 명명이 인차 본래의 명명과 똑같은 의미로 인식되게 된다. 에두름법형태들은 공식외교, 법률, 군사분야의 본문들에서 흔히 리용된다. 대중보도수단들에서는 에두름법형태들이 야유의 뜻빛깔을 가지고 리용될 수 있다.

최근시기 대중보도수단들에서 리용되는 로어어휘의 특징의 하나는 은유화정도가 높은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은유는 개별적사람들이 리용하는 의미적이중성을 가지는 형상적은유가 아니다.

형상적은유가 가지는 내용의 이중성은 기본의미와 련상적의미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생겨나며 이 경우에 은유는 문학적인 형상수법으로 리용된다.

그러나 현대대중보도수단들에서 리용되는 은유는 사회적성격을 띤다. 이것은 형상수법일뿐아니라 무엇보다도 사유의 수법, 세계를 인식하는 수법으로 리용되고있다. 이러한 은유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정치적 및 사상적변화를 찾아내면서 동시에 그것이 어휘의 의미적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낼 수 있다.

사회생활의 일정한 시기에 리용되는 은유의 성격과 그 의미적 및 사회적특성에는 해당 사회자체의 심리가 반영된다. 실례로 이전 쏘련시기의 정론문체에서 리용되던 은유들인 фронт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공산주의문화전선), битва за урожай(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전투), идеологические диверсии(사상파괴)와 같은것들을 들수 있다.

20세기말 대중보도수단언어는 이전시기 언어의 풍부한 전통을 리용하여 사회정치적내용을 가진 은유적색채를 더욱 풍부히 하였다.

예: коридоры власти(정부기관들), корабль реформ(개혁의 배), окопы партократии(일당통치의 전호), бастионы коммунизма (공산주의의 보루)

이와 같은 은유는 자주 단어의 의미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특히 학술용어의 의미색채적감소를 촉진시키게 된다.

우리는 로어어회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변화현상들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 그것들을 로어교수내용과 사전편찬실천에 제때에 반영함으로써 로어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다.